[데이터지도\_공모 자료]

-오픈API및데이터자료\_선택및다운로드 활용 필요

: 필요 예상 종류

* 요소수 현황(세계단위) 및 무역, 업체 수?/외교 상관도?/이용되는 곳:ex 물류/화물차 수?

1. 추가주제: 동물등록

개 출산 수?\_반려동물 현황+유기동물 현황++구조 및 입양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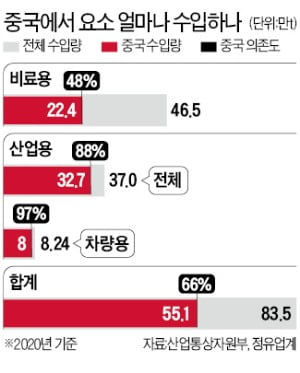
유통..

동물 등록?

+대행업체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 한계: 최신 수정일\_2012년 및 분산되어있는 장소 및 일괄적인 전국단위모집(현황/등록/유기 수)데이터 존재유무

주제1: 요소수

참고: 한경신문

- 요소수 특정 국가 수입 의존 및 비중 높은 1000여개 물품(중국 97.8% 사실 아닌)

- 중국 전력난으로 촉발, 요소수 대란\_2021/11/22 빠르게 해결 진행중

요소수 생산량이 하루 소비량 60만L를 훌쩍 넘어서기 시작했다.

값싼 범용 기초소재인 요소 하루 200t씩만 공급해주면 말끔 해결 일

가장 기초적인 요소의 수입/소비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한 83만t의 요소 중 중국산은 66.3%뿐이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을 걱정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한국은 중국 외에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상당한 양의 요소를 수입하고 있다.

**"안전성 검증 안돼"…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당분간 못한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 "제2 요소수 대란 언제든 터질 수 있어…전략적 모호성 더는 안 통해"

中의 추가 경제보복 발생 가능 과도한 의존 줄이는 전략 필요

# [ 2021년 11월 13일 A19면 ] "요소수, 긴급물량 풀었다고요?…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SK엔크린 가맹 주유소들이 요소수를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SK e-마켓’ 홈페이지가 지난 11일 이후 주문 폭주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한정해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0L, 화물차는 30L까지 요소수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군 비축물량을 활용해 항만 인근 주유소를 중심으로 트레일러 차량에 요소수 공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12일 오후 기준으로 대부분의 도심 주유소에는 정부 보급 물량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서울 약수동 A주유소 관계자는 “하루에 40~50명이 요소수를 구하러 방문 또는 문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도 요소수 구경을 하지 못한 지 2주가 넘었다”고 말했다.

# [ 2021년 11월 12일 A14면 ]

**롯데, 車 요소수 세 달치 확보 신동빈 회장이 직접 뛰었다**

롯데정밀화학 요소 1.9만t 공수

辛회장 글로벌 네트워크 총동원

롯데정밀화학이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 이는 차량용 요소수 5만8000t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요소 확보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2~3개월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직접 나서 요소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세계 곳곳에서 1만2000t의 요소를 독자적으로 가져오고 이와 별개로 정부를 통해 7000t을 추가로 들여와 총 1만9000t의 요소를 확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롯데정밀화학은 국내 요소수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업체다.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8000t), 사우디아라비아(2000t), 일본(1000t), 러시아(500t) 등지에서 요소를 들여올 계획이다.

# [ 2021년 11월 10일 A2면 ] 요소수 대란에 화물차 파업까지…연말경제 올스톱 우려

요소수 사용이 많은 시멘트·레미콘 산업이 멈춰 설 경우 후방산업으로의 충격 전이도 우려된다.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소수 가격 폭등 문제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빠른 해결책 모색에 실패할 경우 연말 경제가 멈춰 서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틀 뒤 요소수 동난다”**

요소를 사용하는 비료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팜한농은 울산 공장 비료 생산라인 4개 중 2개만 돌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우려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각로 230기와 민간 소각로 114기가 있다. 이 중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 시설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루 평균 요소수 3t가량이 사용되고 있지만 재고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 이 같은 혼란은 경유차가 사용되는 산업과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의 수출 중단을 푸는 등 근본 대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연말 경제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소수 부족으로 촉발한 운송 위기가 물류대란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요소수 가격 폭등이 화물운임과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식품가격 상승 등 물가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2021년 11월 10일 A2면 ] 정부, 삼성에 SOS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 요소수 구해달라”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수입업체가 차량용 요소수 생산 과정에 투입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요소가 3000t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중 차량용이 2000t, 산업용은 1000t이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요소수 대란 사태를 피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년에 수입한 차량용 요소는 8만t이다. 하루로 계산하면 219t 정도다. 700t이면 사흘 남짓, 2000t 전체가 생산에 투입돼도 9일치 정도에 그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밝힌 군 예비분 210t도 ‘쥐꼬리’에 불과하다. 요소수 210t(21만L)은 요소로 치면 70t 정도다. 반나절 쓸 물량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업계는 전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활한 수입 재개를 위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도 중국 상무부에 발송했다. 강경민/남정민/정의진 기자

+한국이 호주 등에서 요소수를 긴급 수입하기로 하자 요소수가 충분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왜 못 들여오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협조 요청조차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한 국내업체 관계자는 “일본이 요소수를 만들고 있지만 자급자족하는 수준이며 다른 나라로 수출할 정도의 상황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요청해도 적극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에서 원재료를 들여오더라도 지금 부족한 차량용으로 당장 쓸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 한국경제신문 출처

2. 필요 데이터 수집\_대상 생각(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6_0001665863&cID=10401&pID=10400>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 주부터 가동했다. 해당 품목 가운데 '경제안보 핵심품목' 약 200개를 올해 안에 가려내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에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 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와 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 기업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식이다.  
  
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요소수 역할(필요 데이터 수집\_대상 생각)(2)

-경유차 디젤

-화물차 물류대란

<https://www.ytn.co.kr/_ln/0102_202111261650270422>

또, 현재 티맵을 포함해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하루 2번에서 2시간에 한 번으로 늘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요소수 생산량과 거점 주유소 공급 물량이 안정적이라면서도,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로 물량이 빨리 배분될 수 있도록 생산 업체에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